

새롭고 주체적 시각으로  
정신문화 원류 찾는다

문화교양지 '유역' 창간

고대사를 왜곡하고 근현대의 역사 가치마저 제멋대로 해석하며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입에 재갈을 물릴 방법은 없을까? 정치 군사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소 장기적이긴 해도 우리 국민의 투철한 역사식이 가장 근원적인 '무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고대사는 물론 민족정신의 근간이 되어 온 다양한 문화의 원류를 탐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교양지 <유역(流域)>(사건)이 창간됐다. 가을 겨울호로 최근 첫선을 보인 <유역>은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새롭고 주체적인 시각 발굴 △북한 몽골 시베리아 지역의 북방 문화와 역사의 재발견 △세계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조망 △우리의 전통 문화와 지리, 풍속의 재발견을 통한 삶의 가치 찾기 등을 목표로 내 놓았다. 또 "여러 민족들이 지닌 역사적·인문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간의 차이와 공통성을 살펴보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자 한다"는 의욕도 밝히고 있다.

창간호의 첫 번째 특집은 '고구려를 찾아서'. 특집에서 강우방 동아대 교수가 '요하문명과 한국'을 통해 요하 문명의 완성자로서의 고구려의 미술과 정신을 조명했다. 전태호 울산대교수도 '고구려, 미래를 향한 추위'를 통해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며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집 '시베리아 사머니즘'은 김수남 작가의 사진과 양민중 부산대교수의 '사머니즘이 엘리아데이즘인가'를 통해 종교적 근원으로서의 사머니즘이 갖는 가치와 우리민족 문화의 원형적 가치 등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미술사의 탐방' '유역을 찾아서' 등의 콘텐츠와 증권 시인들의 신작 시, 소설, 문학평론 등을 담고 있다. '미술사의 탐방'은 기존의 명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창간호에서는 강우방 교수의 '세계미술사'와 故 오주석 선생의 '조선왕조 회화의 이해'를 실었다. <유역>의 발행인은 문학평론가이며 출판사 대표 임우기씨다. 값은 18,000원. (02)332-1526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원인 없이 형상 없으니 '空'

성관 스님 '백파의 식지변설...' 논문서 공사상과 유식합일점 도출

조선시대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집대성한 백파공선(1767~1852)의 유식관과 불교의 공사상을 결합시킨 최초의 논문이 발표돼 불교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여대선원 주지 성관 스님(사진)은 최근 <불교학 연구>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 '백파의 <식지변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백파의 입장에서 본 식(識)의 문제와 지(智)의 수행원리를 공사상에 적용해 선(禪)의 무분별자에 대한 논리를 전개했다.

성관 스님은 <식지변설>의 내용 가운데 <한불전>의 대목을 인용해 "식(識)이란 '알음알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제법의 실상을 잘못 분별했을 때 일어나는 인식으로 이것이 법(法)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삼계를 윤회케 하는 주체가 되며 지(智)는 부동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번뇌방상을 끊고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말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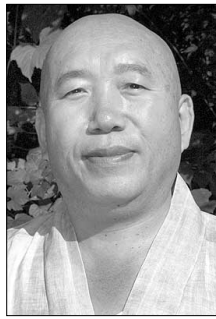
나서 인식의 대상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 가운데 유형으로써 비취 떠올려 실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다.

또 '식의 올바른 증득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욕바라미 실천과 행상이나 외형적인 계사(戒相)보다 청정한 계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수행의 단계에 대해 성관 스님은 "욕바라미의 수행단계, 즉 생구제의 실천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과 자리아타 덕목인 '정진, 선정, 지혜' 등으로 나눠 이를 바탕으로 한 반야행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욕바라미의 실천수행은 식의 분별심을 버린 바른 믿음의 수행인 '아낙 다라삼막사보리(회상승의 깨달음 혹은 정등각)'의 무분별 지혜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열불수행 또한 청정열불이 아닌 '열불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이켜 관찰할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욕바라미 수행의 근본'이라는 것. 이는 곧 '대반열반장' 사의품을 인용해 식과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식지변설>의 핵심 내용인 '더럽고 깨끗함이 모두 하나의 식이 일인' 문제를 바로 지혜(智解)하여 오직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며 중생의 성품이 본래 부처이므로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로가 극락' 정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논문은 백파의 공관(空觀)과 유식(唯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래 없기 때문에 공이요(遍計所執), 유형은 인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며(依他起性), 원인 없이 공중에 윤회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圓成實性)'이라는 논리로 공사상과 유식에 대한 합일점을 도출하고 있다.

<식지변설>은 조선의 역불승유 정책으로 말미암아 승단체계가 무너지고 교와 선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였고 이를 때 백파가 선에 입문한 사부대중과 함께 수선결사해 저술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식학서다. 내용 구성은 역대 조사의 선지와 선풍을 한데 모아 식이 분별하는 여러 문제를 지혜(智解)하고 선리(禪理)를 읊듯이 펼쳐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성관 스님은 "식지변설"은 선수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효의 <발심수

행장>과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입문>을 인용해 식의 올바른 지혜(智解)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는 어리석은 분별도 지혜로운 분별도 모두가 조금 안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식의 분별이므로 정(正)과 사(邪)의 바른 지혜로 생멸에 대한 분별을 여원(緣) 지혜탁마에 정진할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성관 스님은 <식지변설>의 내용 가운데 <한불전>의 대목을 인용해 "식(識)이란 '알음알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제법의 실상을 잘못 분별했을 때 일어나는 인식으로 이것이 법(法)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삼계를 윤회케 하는 주체가 되며 지(智)는 부동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번뇌방상을 끊고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말함"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지는 곧 '마음 본체'를 가리키며 전변(轉變)하여 어떠한 실상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 밖에 있다고 하는 물심(物心)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가 주관과 객관으로 변해 나타

불교로 여는

상담심리학 새 길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가져

'휴전심리학', 불교를 상담에 접목시킨 새로운 학술분야를 일컫는 신조어다. 2500년 동안 사람의 마음에 대한 체험적 연구·성찰을 축적해 온 불교가 최근 상담심리학과 접목되면서 정신의학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9월 9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불교와 학습이론, 그리고 불교 상담'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최근 '불교사상'을 주제로 한 상담심리학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밝은사람들연구소는 9월 9일 '불교와 학습이론, 그리고 불교상담'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미산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김보경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경호 교수 등이 불교상담의 성격과 영역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보경 교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 행동결과의 총화며 업과 흠송이 쌓여 현재 나의 습관과 성격을 형성한다"는 불교의 인연법을 '나(我)라는 실

체를 조건화와 학습된 결과물'로 보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접목시켜 불교상담을 설명했다.

그는 '명상·좌선을 통한 심리치료'와 '통합성 회복 치료 단계(욕바라미)를 통한 이해와 공감회복 치료'는 8교의 원인이 되는 애욕을 제어할 수 있는 불교상담의 실질적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4>

이노베이션

세계는 빛의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간은 20세기, 100년 동안 수많은 이노베이션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를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상거래 교육 의학 금융 통신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20세기 들어서 시작한 이노베이션 중에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자동차 비행기 TV 로켓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등 수많은 발명품 중에 동양에서 발명된 것은 없는 것 같다.

동양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전적이라는 것 찾기도 하고 유교의 봉건주의 사고에서

도 할 수 있듯이 미래에는 어린아이들도 DNA조작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듯이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인간은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것이고 DNA 조작에 의한 생명조작도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는 이노베이션을 향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부실 정도로 발달한 핵과 컴퓨터공학기술을 가진 중국과 인도의 이노베이션은 더욱 그렇다. 교육 또한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인재로 기르도록, 창조적인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양은 오랜 동안 정신세계에서 이노베이션을 계속 해 왔다. 서양인 인간 밖에서 이노베이

혁신의 과학기술발전 인간 삶 방식에 큰 변화

불교, '이노베이션시대' 어떻게 이끌지 고민해야

찾기도 한다. 이들은 또 서양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민족간의 전쟁을 통한 문명의 흡수통합에서 그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더욱 더 인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통신기술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 세계적인 단일화는 무역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영역, 언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전화로 호텔 숙박, 열차표 등을 예약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어디에서나 어느 호텔이든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조작하면서부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컴퓨터 조립을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들

션을 지속하는 동안 고집스럽게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달마시사가 동양에 선사상을 전해준 이후, 500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사상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시다. 육조대사에서부터 주주, 마조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이노베이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을 밝혀준다.

또한 조선시대의 극한적인 필박에서 방식과 살아가는 영역, 언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전화로 호텔 숙박, 열차표 등을 예약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어디에서나 어느 호텔이든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조작하면서부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컴퓨터 조립을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들

끊없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참모습마저 변화하는 이때, 한국불교의 정신적인 전통이 어떻게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을 이끌지, 어떻게 인간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변화를 강요할 것인지, 인간을 사는 불자들이 사명감을 컴퓨터 조립을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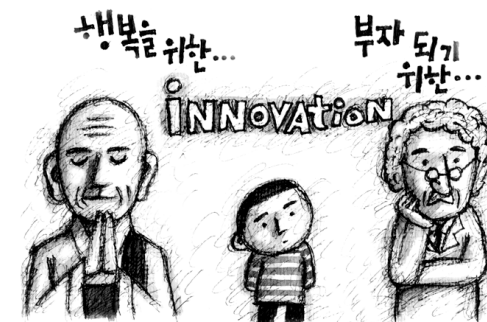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Advertisement for 'Innovation' (대도진인 견성도통으로 신선입문에 들어 초능력과 도통하여 신선과 도인되는 경신대법회)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a testimonial about spiritual growth.